(인도자용)

믿음이 뭐니? 5

"뭘 해야 할까요?"

마음열기

남자가 사랑할 때

- 남자가 사랑하면, 일단 지갑을 열죠~ 아무리 짠돌이 구두쇠라도,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화끈하게 엽니다!
- 완전 매너남으로 변신하죠. 여친 위해 차문 열어주기, 스테이크 썰어주기~ 모두 기본이죠.
- 질투욕에 불타요~ 그녀가 딴 남자랑 얘기만 나눠도, 조금만 짧은 치마만 입어도...부글부글!
- 남자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천하장사가 된다!!!!. 데이트 할 때 "쟈기~ 나 다리아퍼" "그래?!!!! 자~업혀~" " 쟈기 나 안 무거워? 괜찮아?" "하나도 안 무거워 " 라며 으샤으샤 했던 우리 신랑 지금은 "자기 나 다리아퍼" 이러면 "그러게 누가 구두 신으래~~ 운동화신고 다녀"

여자가 사랑할 때

- 여자가 사랑하면, 조신녀로 변해요
- 친구요? 남친 없을 때만 연락하는 사이 아닌가요? 여자가 사랑할 때, 친구고 주변사람이고 남친에게만 올인!
- 라면 하나도 못 끓이고, 밥 한번 해본 적 없었어도...여자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그 남자를 위해, 대장금 뺨치게..변신해서, 사랑의 도시락도 거뜬하죠!
- 미모에 물이 오르죠. 다이어트도 하고, 옷도 사고~ 여자가 역시 제일 예쁠 때는 사랑할 때~
- 자꾸 챙겨주고 싶어요~ 모성본능인가요? 아침 못 먹는 남친을 위해 샌드위치를 싸주기도 하고, 더위를 많이 타는 남친을 위해 물티슈는 항상 필수~! 사랑할 때... 뭐든 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연애 시절을 기억하며 위의 내용들 중 공감이 가거나 경험해 본 것들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나눔

1. 아래 질문들에 대해 당신의 솔직한 생각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 믿음과 헌신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당신이 과거에 했던 헌신이나, 현재 교회에서 하는 헌신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헌신의 종류,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2.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로마서 3:27-28(메시지)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발 맞추어 나가려면,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야지, 거만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진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 롬 3:27-28은 그리스도인의 삶,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어떠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 롬 3:27-28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야지, 거만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진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은,,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것..

📖 아래 글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나누어 주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던 상태에서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실천하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자기 역시 어떻게 해서든지 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 가게 해 주신다는 사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C.S 루이스

- 나는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신 경험이나 확신을 나눌 수 있는 순간은 언제였는가?

-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내 삶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적용과 결단

누구나 한 번쯤은 첫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설렘과 짜릿함은 평생 잊지 못할 감정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감격하며 "이분을 위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하지 않

을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우리는 여러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기, 십일조를 성실히 드리기, 기도를 열심히 하기, 교회 봉사하기, 착하게 살기, 구별되게 살기, 친절하게 살기, 화를 줄이기...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 아들로 태어나 최고의 부와 권위를 누리며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능력과 지위 면에서 뛰어났던 그는,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동족에게조차 비난을 받았고, 결국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80세, 삶을 정리해야 할 나이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40년 전 모세가 하려 했던 일을 다시 지시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배, 십일조, 성경 읽기,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깊은 내면에서는 자기만족을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행동이 아무리 진지하고 순수한 동기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단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 삶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삶으로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삶이나 율법주의적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신뢰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신앙적 행동(예배, 기도, 봉사 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바꿔야 할 습관이나 생각은 무엇인가요?

기도